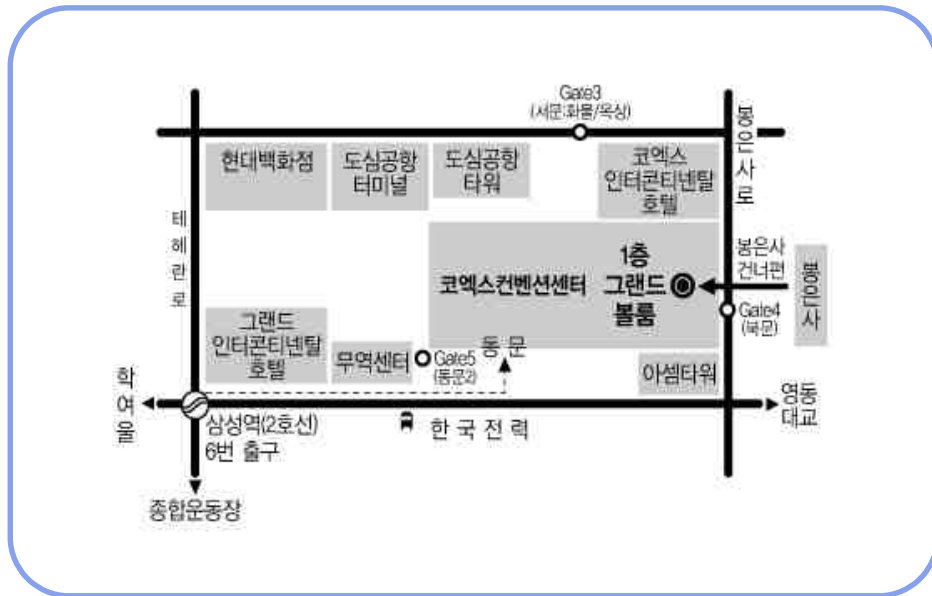


오시는 길



2010년 소프트웨어공학인의 밤

|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

| 교통편 |

-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5, 6번 출구
- ▶ 버스 - 간선 146, 301, 341, 342, 360, 362, 401, 640, 730,
- 지선 2415, 3217, 3411, 3412, 3414, 3418, 4434
- 공항버스 6000, 6006

| 후원 | MDS 테크놀러지 



SOFTWARE ENGINEERING

SOCIETY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추진 협의회



SOFTWARE ENGINEERING

SOCIETY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추진 협의회

초대의 글

2010년이 점차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2010년은 애플사의 아이폰 등장으로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미래의 공산품 시장을 지배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는 눈이 단지 그 자체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반이며 산업의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바뀌기 시작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력이고 인력을 키우는 교육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적인 수요도 충족을 못 시킬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인력을 양성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산업의 수요를 못 맞추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그 이유만을 주장하며 부실화된 교육을 고집하고만 있을 수 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보고 이를 실천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와 경쟁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변화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을 마무리 하면서 2011년에는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에 옮기고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 개편 방안과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하여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변화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2010년 12월

박수용

소프트웨어 공학 소사이어티 회장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추진 협의회 운영위원장

프로그램

1 부

4:00-5:30 그랜드볼룸 102호

사회: 이관우 한성대 교수

4:00~4:30 SW공학표준커리큘럼 박수용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회장

4:30~5:30 패널 토의 강교철 포항공대 교수

유영수 오토에버시스템즈 상무

이상은 NIPA SW공학센터장

이우복 삼성전자 수석

정연대 N3Soft 사장

주제 1 : 산업체의 소프트웨어 인력문제

주제 2 : SW공학 표준커리큘럼과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2 부

6:00-9:00 그랜드볼룸 101호

사회: 최병주 이화여대 교수

개회사 박수용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회장

환영사 배은희 국회의원

격려사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격려사 홍진표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축 사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연설 Zhonghai Wu(북경대 School of Software 부학장)
: SE education and curriculum in China

만 찬